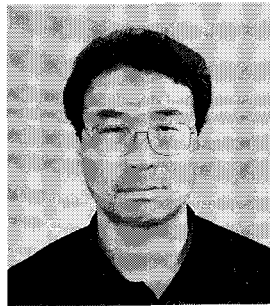


# 각 지역별 육우모임 결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황도정  
경기육우회 회장

월간 낙농육우 창간 열세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우기 그동안 끊임없이 육우인을 위하여 힘써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생각해 보면 우리 육우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낙농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해주었으니 무어라 그 고마움을 표현할 지 모르겠다. UR의 파고가 밀려올 때 저 여의도 집회, 또한 과천 집회등등~ 더구나 올 2월에 있었던 문민정부하의 대학로 집회는 우리 육우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느끼는 육우인들의 머리 숫자 모자람은 육우인 특히 한우쪽의 너무나 영세한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영세한 한우농가를 대변

해 줄 수 있는 낙농육우협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협회에 대한 바람을 말해 보겠다.

첫째,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인들의 조직과 같이 각 지방에 육우인들의 모임을 결성해야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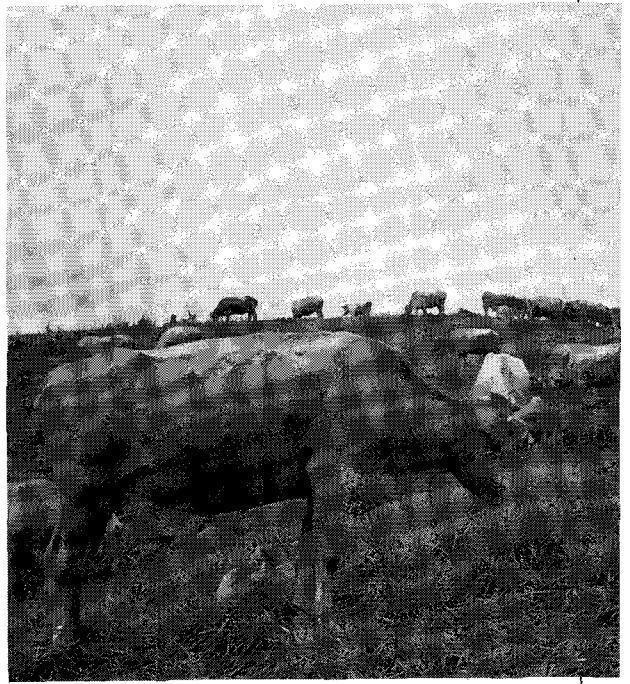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육우중 절대 우위에 있는 한우의 입지를 높임과 동시에 사육농가의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예컨대 각 지역마다 육우인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면 협회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국의 사육 농가에까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출하물량을 조절해야 할 경우라든지, 정부에서 한우 경쟁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일을 육우인 모임이 결성된다면 협

회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협회는 쇠고기와 유제품이 붓물 터지듯 밀려 오는 시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라는 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소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식물을 먹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육우 농가는(필자를 포함한) 고급육 생산이라는 미명하에 농후 사료를 과다 급여하여 결국 소의 생리를 무시한 사육과 많은 생산비 지출로 인하여 값싸게 먹어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이것은 3D현상이라는 시대 조류와 맞물려 조사료 생산을 거부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마침내 사료회사로 하여금 조사료 없이 소를 키우는 사료를 개발하게 하여 결국 쇠고기 값을 올려놓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이것은 비육우 농가뿐이 아니라 어쩌면 낙농을 하는 농가도 사료 회사에 현혹되어 유제품값을 올리는데 동조하는게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비육우 농가는 전업규모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아마 이것은 필연적 현상일 것이다. 이런 전업규모 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각종 농기계와 인력을 동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농기계 구입과 관리도 그렇고 말이다. 이런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정부로부터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영농법인을 협회에 등록시켜 각 지역별로 그 영농법인을 조사료 생산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료 생산에 참여한 영농법인을 협회에서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해 주어 결과적으로 축산인 전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조사료 생산에 접근한다면 벼짚 또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벼를 수확할 때 벼짚 곤포기가 콤바인과 같이 작업이 될 수 있게끔(연구비만 들이면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얼마든지 발명 할 수 있음)만 해준다면 수송이 용이해지게 된다.(마르지 않는 벼짚이므로 압모니아 처리함) 이것을 낙농육우 협회에 등록된 운송



업자에게 전달시켜 이를 각 지역 축산인들에게 공급하면 된다. 어쨌든 이와같이 협회는 무엇인가 피부에 와 다하는 사업을 해야만 한다.

**셋째, 조금 거창 하지만 우리 협회는 소시장(유통)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너무 막연한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우리 한우 시장은 영세한 번식 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송아지 전문 판매상들이 수집하여 우시장에서 판매한다. 이 송아지는 중소(비육에 들어가기 전이나 수정 들어가기전)가 되면 또 상인의 손을 거쳐 우시장에 나오고 이는 최종 번식농가나 비육농가로 가게 된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 한마리가 중개료, 축협수수료, 운반비를 발생 시키면서 낭비하는 비용이 약 이십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 비용은 여기서만 그치는게 아니다. 소는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한 굉장히 크다. 바로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맹점이 숨어 있다. 소가 그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기간이 20여일 소모 된다. 그 20여일은 증체없이 비용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사료비, 인건비, 약값등등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본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고 손실

인 것이다. 꼭 이와같은 유통과정을 고수하여 쇠고기 생산 원가를 낮춰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지금과 같은 이런 유통과정을 협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먼저 협회주도로 각 지역에 육우 농가의 모임을 결성해야 한다. 이렇게 결성된 모임을 이용하여 번식우 농가와 비육우 농가를 구분한다. 또한 번식우 농가는 중축 개량협회의 도움을 얻어 부모의 혈통을 알 수 있는 혈통 계보를 만든다. 이렇게만 된다면 각 지역별로 특성있는 한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식된 송아지는 지역 모임을 거쳐 협회 중앙에 보고 하게 되고 이는 중앙의 컴퓨터 통제실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비육우 농가에 다시 공급하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소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무작정 고급육 생산에 편중하여 어떤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자금을 살포하는 것 보다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하여 이와같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축산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낙농육우협회는 번식 사업에 참여 하여야만 한다.**

지금 각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유전공학 팀들은 쌍자 생산이나 수정란 이식의 연구가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 갔다고 한다. 바로 이런점에 착안하여 많은 장사꾼들이 벌써부터 상품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축산인들의 문제이기에 협회에서 각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장사꾼들보다 먼저 협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유정공학적인 방법으로 송아지가 생산된다면 송아지 생산비가 지금의 반값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수입 쇠고기와도 경쟁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식 사업에 우리 협회가 주도적인 일을 할 때 각 지역의 번식우 농가는 협회를 통하여 값싸고 품질이 확실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다섯번째 우리 낙농육우협회는 사료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알팔파, 목초씨앗 수입)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 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우리 낙농육우협회에 바라는 사항은**

- i)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인들의 조직과 같이 각 지방에 육우인들의 모임을 결성해야만 한다.
- ii) 협회는 쇠고기와 유제품이 붓물 터지듯 밀려오는 시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 iii) 조금 거창 하지만 우리 협회는 소시장(유통)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 iv) 낙농육우협회는 번식 사업에 참여 하여야만 한다.
- v) 우리 낙농육우협회는 사료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가지려면 사료부문에서 혁신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가격인하를 위해서는 이미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TMR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방법은 각 지역별로 모임이 결성되어 활성화만 된다면 큰 어려움없이 축산농가에 보급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 TMR사료를 만들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부산물을 각국의 무역업체 채널을 통해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겠다.

이상 제가 평소 가지고있던 생각을 우리 낙농육우협회에 건의해 보고 나니 마음이 가뻐해진다.

이제 우리 협회는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상으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초조직이 있어야 되겠고 이는 각 지역마다 모임을 결성 각 지부를 통해 하부조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모양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협회가 큰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말이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의 어두움을 이겨나가는 낙농, 육우인들이기를 빌며 우리 협회의 건투를 기원한다.